

2018.3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8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8.3.26	대전MBC 대회의실	6/10	5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함진호, 김종문, 김은주, 신종성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3	7	-	-	20	-	2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8	2	-	2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3월
교양	시의성 맞는 시사프로그램, 주제선정에 있어서 요즘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만한 것을 소재로	시사플러스에서 “미세먼지(3/15), 위기의 무료생협, 흔들리는 복지(3/22)” 등 시의성 있게 방송	3월
교양	방송제작에 있어서 프로그램 포맷 변경 시도	스마트시대에 부응하는 방송포맷 변경 “경청”(3/12) 등-인터넷 및 스마트폰 참여자들이 웹공간에서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는 성격의 프로그램 제작	3월
기타	대전MBC 홈페이지 2017년 내용은 2018년의 것으로 업데이트 해주길	방송지표, 캠페인, 행사 등 2018년으로 업데이트 함.	3월
보도	토론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 패널섭외 필요	시사토론M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3/18) 패널 찬반 의견자 균형 있게 섭외	3월
보도	아침뉴스에 전달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내용 아닌 참신한 기획물을	아침 “뉴스투데이”에서 “리빙톡톡” 코너에 주부들의 생활경제 관련 소재의 뉴스 별도 기획하여 방송(3/5, 3/12, 3/19, 3/26)	3월
보도	지역의 핵심이슈를 집중적인 기획취재로	“핵연료 재처리 사업재개(3/29), 롯데유성복합터미널에 이어 안면도 개발의 문제점 노출(3/28), 교수 부정채용(3/19)” 등 집중취재	3월
기타	편성위원회 성격을 담은 편성규약 개정 일자 적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편성규약 개정(4/2) 홈페이지에 게재함	3월
교양	기상캐스터 의상 날씨 상황에 맞게끔 의상 준비하여 진행하길	아침이 좋다 생방송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날씨코너에 기상캐스터 그 날 날씨에 맞게 준비하여 진행	3월
기타	대전MBC 제작 프로그램 지역신문사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 필요	지역신문사, 인터넷신문사 등에 대전MBC 특집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홍보	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7.05.01- 18.04.30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17.05.01- 18.04.30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17.05.01- 18.04.30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7.05.01- 18.04.30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7.05.01- 18.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7.05.01- 18.04.30

*신성철, 송길현, 김종문, 함진호, 김은주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3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 코너에 예전에는 주간 <뉴스 브리핑>이라던지 <뉴스&이슈> 코너가 동시에 없어진 것 같다. 시청률이 내려간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 시청자들인 주부들에게 뉴스를 다시 한번 전달해주는 것은 유익했던 것 같아 다시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부분이 “생방송아침이 좋다”에서는 한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뉴스전달 코너도 없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 초대석으로 통해 문제를 짚어볼 기회가 “생방송아침이 좋다”에서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다. 또한 금요일마다 소개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이색체험 소개. 예를들면 3월9일에 경주지역, 16일에는 대구오페라 하우스, 23일에는 또 경주지역의 이색체험을 소개하며 경주어린이 박물관이 소개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의 이색 체험이나 볼거리 보다는 우리지역 위주로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강은혜)</p>	<p>뉴스 관련 코너의 경우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청자들이 접했던 뉴스를 단편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었다.</p>			
보도	<p>3월 11일 “시사토론M”에서는 “안희정사태 실제와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는데 이미 2월에는 “미투운동 확산 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다룬바 있다. 안희정사태의 충격과 더불어 미투운동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다루어져 자칫하면 또 얘기하나? 라는 미투운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투운동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함께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뉴스에서 기획보도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강은혜).</p>	<p>관련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은 시의성과 지역 의제 연관성 등과 관련해 제작하도록 하겠다.</p>	○		
교양	<p>대전MBC라디오 “FM모닝쇼” 프로그램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데 진행자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 매일 코너로 “떡드세요” 코너가 있는데 사연을 보내 당첨되면 떡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떡을 배달해 주는 코너이다. 인기가 많은 코너</p>	<p>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 담당 제작진과 협의해 반영하도록 하겠다.</p>	○		

	<p>인데 혹시 된다면 고마운 사람에게 감동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전화연결 (사연 보낸 분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도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강은혜).</p>			
교양	<p>시사플러스(3월15일)에서 미세먼지를 다루었다. 요즘 시민들의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의 정책, 시민단체의 노력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유익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마지막에 정리해주었다면 더 좋았겠다. 미세먼지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각적 자극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어 좋았다. 미세먼지 시민조사단 인터뷰 부분에서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워 집중하기 어려웠다(정철상).</p>	<p>현장 촬영의 경우 자칫 주위 환경이 소란스러울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한다. 제작진이 최대한 적합한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하고자 하나 부득이 발생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세심한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p>		
교양	<p>3월17일 “건강 플러스” 프로그램의 건강 밥상에서 딸기참쌀떡과 딸기피자 두 가지 메뉴를 소개하여 다양한 연령층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따라 하기 쉬운 조리법이라 좋았다. 이미지를 설명 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포인터 같은 것을 이용하여 더 많은 시청자가 빠르고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대장암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지만 너무 설명위주라 약간 지루했다(정철상).</p>	<p>요리의 경우 프로그램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레시피를 공개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출연 전문의에 따라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제작진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가급적 알차고 심도 있는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p>	○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 (3월23일)를 시청하였다. 처음 아나운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할 때 BGM이 좀 더 빨리 꺼졌다면 좋을 것 같다. 기상캐스터가 빠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어색하고 조금해 보인다. 그리고 BGM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퀴즈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쉽고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게 전달한 점이 좋았다. 아이들과 가기 좋은 장소를 소개함으로써 그 시간대 주 시청자인 학부모 연령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다음엔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도 소개한다면 좋을 것 같다(정철상).</p>	<p>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담당 엔지니어의 특성이 조금씩 반영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최대한 정형화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보도	<p>뉴스에서 대전지역의 미세먼지를 언급하면서 자료화면은 충남지역의 미세먼지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과 뉴스멘트를 일치시켜주길 바란다(이상진).</p>	<p>보령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들이 주로 충남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 미세먼지 영상이 주로 충남지역으로 노출된 면도 있었다. 대전지역 관련 영상 확보에 주력하겠다.</p>	○	

교양	<p>날씨를 전달하는 기상캐스터의 역할은 중요하다.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날씨를 관심 있게 보는 시청자들이 많다. 기상날씨 전달할 때 뒷 배경화면을 유심히 보았다. 오전 기상뉴스와 오후 기상 뉴스의 배경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듯하다. 시시각각 날씨가 변함에 따라 뒷 배경화면의 날씨영상도 기상뉴스 멘트와 함께 바뀌어야 할 것이다(이상진).</p>	<p>배경화면의 경우 사옥 옥상에 위치한 카메라를 활용하는데 다양한 화면 구성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다.</p>			
보도	<p>통합물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바란다. 가뭄 등으로 인해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길 바란다(이상진).</p>	<p>매년 물가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다. 이에 보도국에서는 가뭄 보도에 대한 기획보도를 준비 중이다.</p>	○		
교양	<p>3월 20일 “어영차 바다야” 프로그램 제작량이 55분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작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해 다음 본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캠페인, 행사, 예고 PR 등이 많이 나가 시청하는데 지루하였다. 시간을 재어보니 7분 정도 부족해 보였다. 다음부터는 주어진 제작시간량을 맞추어 시청자들이 시청하는데 지루함을 주지 않게 제작했으면 좋겠다(송길현).</p>	<p>일반적으로 전, 후CM이 완전판매 될 경우를 예상하고 제작량을 결정. 그래서 55분물의 경우 CM총량이 5분 30초 가량 되므로 본내용을 48분 내외로 맞춘다. 가변적인 CM량에 따라 총제작량이 들쭉날쭉한 상황이지만 CM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 제작사인 목포MBC에 프로그램 제작량 준수를 요청하겠다.</p>	○		
보도	<p>저녁에 방송되던 “이브닝뉴스”가 사라져 아쉬움을 갖는다. 이브닝 뉴스를 부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송길현).</p>	<p>이브닝뉴스를 대체하는 “뉴스콘서트”에 로컬시간대를 편성하여 4월 첫째주부터 방송할 예정이다.</p>	○		
보도	<p>본인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기입하여 명예훼손을 입고 상처를 입은 과학자가 주변에 있다. 학자로서 명예가 순식간에 사라지니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반증이다. 연구단지의 연구원, 과학자들은 자존심,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한다. 사실보도에 앞서 한 번 더 팩트체크를 하고 보도하면 좋겠다(신성철).</p>	<p>대전MBC 뉴스에서는 지적인 내용의 보도는 나가지 않은 듯하다. 뉴스 제작 시 유별할 내용이라고 본다.</p>		○	
보도	<p>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종종 있다. “특공부대 총기 사망사건 의혹(3/26), 미투 2차 피해 막으려면(3/24), 행복주택 관리비 폭탄(3/20), BRT도로에서 버스상가로 돌진(3/18)” 등에서 음성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 영상의 모자이크와 더불어 음성변조도 적절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이승선).</p>	<p>모자이크와 음성변조...모자이크의 적정성 등은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으로 확립하도록 하겠다.</p>	○		

<p>보도</p>	<p>같은 영상을 다른 뉴스 아이템에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규직 전환 지지부진(3/5)” “대덕특구 보통구로 전략(3/10)” 내용에 동일 화면이 사용되었다. 뉴스 내용이 다름에도 같은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이승선).</p>	<p>자료 화면의 경우 뉴스와의 매치를 적극 고려하고 같은 화면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다.</p>			
<p>보도</p>	<p>“동료살해 후 야산 암매장(3/24)”의 경우 화면처리를 살펴보았다. 취재기자가 달려진 문을 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여러 번 노출이 되었는데 취재기자가 왜 자꾸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뉴스의 취재보도의 목적, 맥락과 영상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이승선).</p>	<p>취재과정에서의 윤리강령 준수는 물론 구태의연한 그림만들기 등의 관행을 타파 맥락과 영상에 따른 제작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p>	○		
<p>보도</p>	<p>“집중취재-교수 부정채용 논란, 교육부 조사 예고” 93/19)의 경우 대학총장의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전파를 탔다. 공적인물, 공인, 대학총장의 경우는 실명으로 초상공개가 바람직하다. 모자이크 처리가 오히려 취재보도의 목적을 모호하게 만든다. 대학 정책의 문제점을 총장 개인의 비리로 호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모자이크 아닌 정상적인 초상공개가 맞다고 본다(이승선).</p>	<p>자연인과 공인으로서의 보호의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p>	○		
<p>보도</p>	<p>영상자료의 출처 표시가 아직 미흡하다. “내포에 공공기관 이전, 혁신클러스터 추진(3/19)” -충남도에서 제공 받았으면 출처를 밝혀야 “BRT도로에서 버스상가로 돌진(3.18)” -경찰청에서 제공받았으면 밝혀야 등등 영상 자료의 출처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전MBC의 자체취재물이 아니면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이승선).</p>	<p>영상 출처에 대한 표시와 기사의 바이라인 여부 등에 대해 더 철저하게 확인하여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p>	○		
<p>보도</p>	<p>뉴스제작에 있어 반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로 안전 연구원 안전 부족” (3/21) 뉴스의 경우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활동 보고를 다루면서 원자력안전방재연구조합 이사의 인터뷰를 담았다. 원자력연구원이나 대전시의 반론은 빠져 있었다. 사안의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 반론이 필요할 경우 반론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본다(이승선).</p>	<p>반론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요청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뉴스 제작시 반론권은 반드시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p>보도</p>	<p>리포터 뉴스의 경우 보통은 1분 30초 전후로 제작을 한다. 가끔은 3분 단위의 뉴스</p>	<p>기획취재물의 경우, 호흡과 뉴스의 배치상의 전략 등을 고려하여 집중취재</p>	○		

	<p>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흡이 길어서인지 내용이 실속 있게 3분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럴 경우 아이템을 2개로 나누어 처리를 하면 내용과 영상 구성이 더 알차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승선).</p>	<p>은 집중 배치 블록화 등을 고려하겠다.</p>			
<p>보도</p>	<p>최근 보도 대상, 관점의 다양성이 증가되어 치하를 해주고 싶다. “인권위 유성기업 청문회 추진(3/18), 아산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소송 후유증, 원자력안전, 석탄제로 충남도정책 등 취재 아이템이 다변화 되고 관점의 다양성이 증가하여 보기 좋다. 계속 분발해주길 바란다(이승선).</p>	<p>칭찬 감사드리며 노동, 환경, 여성 등의 그동안 소외됐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풍부한 접근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다.</p>			